

전방위. 무정형. 비연애인구 전용잡지

계간홀로

~연애하지 않을 자유 제 6호~

福 러지는

홀로가 되리라

발행인의 편지

김송

안녕하세요, 계간홀로입니다. 5호를 내고 4개월이네요. 애초에 삼시세끼 밥 챙겨 먹는 것 말고는 꾸준히 하는 것에 재능이 1도 없는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키는 대로 만들고 땡기는 대로 낸다”고 방패를 치긴 했지만...정말 제 맘 대로 나오는군요. 발행일 체크하시느라 독자분들이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크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겨울호는 발렌타인데이에 내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힘차게 2015년을 열어야지 하는 마음에 뜬금없는 타이밍에 이렇게 6호가 똑딱 나오게 되었습니다. 봄부터는 제가 또 본업에 임하느라 휴간에 들어갈 지도 모르니, 할 수 있을 때! 해치워버려! 헤헬



그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매번 연애와 관련된 이슈는 계간홀로에서 다루어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제 간장종지만한 그릇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네요. 게다가 일을 훑 몰아서 하는 타입이다보니 항상 마감에 쫓겨 다루지 못하고 다음호로 밀리는 일이 발생, 계간홀로는 영원히...미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계간홀로를 발행하기 시작한 게 벌써 햇수로 2년. 6권의 잡지가 나왔고 발행부수는 3배 가까이 뛰었지만, 여전히 잡지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네요. 하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지원사격해주시고 발로 만든 잡지 업어 키워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계속 이렇게 나뉠 거예요. 계간홀로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어느날의 제가 그러했듯, ‘연애’라는 현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이 세계에서 ‘비연애’의 가능성과 그것이 머물 자리를 찾